

中 중심 전기차 배터리 시장 재편 韓 각형 등 차세대 제품 개발 주력

포트폴리오 다변화 통해 시장 대응
LG엔솔 '3대 폼팩터' 전략 확립
삼성SDI 현대차, GM 등 협력 강화
SK온 각형 배터리 생산라인 구축

올해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기)에도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다만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점유율은 하락했으며 중국 업체들의 강세가 지속됐다. 이에 국내 배터리사들은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모양새다.

8일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10월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에 탑재된 총 배터리 사용량은 686.7GWh(기가와트시)로 전년 동기 대비 25.0% 성장했다. 같은 기간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3사의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도 성장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국내 배터리 3사의 합산 시장 점유율은 중국 업체들에 밀려 전년 동기 대비 3.5%포인트 하락한 20.2%에 머물렀다. LG에너지솔루션은 6.4% 증가한 81.2GWh로 3위(점유율

11.8%)를 유지했고 SK온은 9.5% 증가한 31.1GWh를 기록해 5위(점유율 4.5%)에 올랐다. 7위(점유율 3.8%) 삼성SDI는 2.3% 증가한 26.2GWh를 기록했다.

이 기간 중국 CATL은 28.3% 성장한 252.8GWh를 기록하며 1위(점유율 36.8%)를 유지했고 BYD(비야디)는 31.3% 성장한 115.3GWh로 2위(점유율 16.8%)에 올랐다.

중국 업체들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배터리 시장의 경쟁은 과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내수 시장뿐 아니라 신흥국까지 진출해 점유율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유럽 최대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노스볼트는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지난 11월 21일 미국에서 파산보호를 신청하는 등 시장 내 재편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터리 3사는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등 전략을 모색해 시장에서 살아남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장기간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산 역량을 확대해 캐즘 이후의 시장 변화를 대비하는 모습이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폼팩터(형태) 중 하나인 각형 배터리 공급 및 개발에 일

제히 나서 고객의 요구에 발맞춘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각형 배터리는 CATL이 주력으로 공급하는 제품이다. 세계 시장 수요가 늘면서 국내 배터리사들도 포트폴리오 확보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자동차 제조 기업 제너럴모터스(GM)와 함께 각형 배터리 공동 개발에 뛰어들었다. 각형 배터리 개발 계획을 공식화함으로써 파우치형, 원통형, 각형 등 업계 유일한 '3대 폼팩터' 전략 체계를 갖추게 됐다.

삼성SDI는 현대자동차그룹과 GM 등에 공급을 확정 짓고 관련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다. GM과는 미국 내 2027년 양산을 목표로 35억달러를 투자해 합작법인을 설립한다.

SK온 또한 각형 배터리 설비 투자에 착수했다. SK온은 서산 2공장에 각형 배터리 생산라인을 구축하기로 하고 장비 입찰을 진행했다. 국내 복수 장비사와 일부 중국 장비사가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차세대 배터리 개발이 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현대차, '디 올 뉴 팰리세이드' 디자인 공개

좌석 활용 가능한 센터콘솔 적용

국내 대형 스포츠유틸리티(SUV) 시장의 독보적 강자 '팰리세이드'가 한층 웅장해진 모습으로 돌아왔다. 특히 9인승 모델을 추가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운행이 가능해져 기아 카니발과 경쟁도 예상된다.

현대차는 7일 프리미엄 플래그십 대형 SUV '디 올 뉴 팰리세이드(이하 신형 팰리세이드)'의 디자인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신형 팰리세이드는 2018년 11월 첫 출시 이후 6년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완전변경 모델로, 팰리세이드만의 독보적인 캐릭터를 계승하면서도 더욱 견고하고 고급스러워진 디자인으로 재탄생했다.

신형 팰리세이드의 전면부는 수직적인 DRL과 라디에이터 그릴이 독보적인 캐릭터와 결합해 압도적인 첫인상을 갖춰내고, 미래적이면서도 강렬한 느낌의 센터 포지셔닝 램프는 높은 후



현대차 디 올 뉴 팰리세이드 (위)외장(아래)실내.

드와 균형을 이루며 마치 웅장한 조형물을 보는 듯한 느낌을 선사한다.

특히 신형 팰리세이드에는 현대차 최초로 1열 가운데 좌석으로 활용이 가능한 센터콘솔이 적용돼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양성운 기자

"특가 항공권으로 겨울여행 떠나세요"

LCC업계, 할인·팝업 등 혜택 강화

겨울시즌 앞두고 여행객 확보 나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겨울시즌을 앞두고 실적 방어에 집중하고 있다.

항공사들은 연말 증가하는 여행 수요를 겨냥해 앞다퉀 특가 항공권과 신규 노선, 현지 업체와 손잡고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12월의 딜라이트 팝업 스토어를 오픈했다. 딜라이트 팝업 스토어는 매월 특정 노선을 대상으로 운임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월간 프로모션이다. 이달은 크리스마스 마켓을 컨셉으로 38개의 국제선 노선에 최대 10% 할인을 제공한다.

에어서울은 현지 숙박, 관광업체와 손잡고 겨울 성수기 시즌을 맞은 제주 여행을 고민하는 여행객을 위한 '제주에서의 이야기'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양성운 기자

우선 '해비치호텔&리조트제주' 투숙 시 최대 3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제주아트스커스는 정가 대비 55% 할인된 1만원에, 제주시티투어버스는 33% 할인된 8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티웨이항공은 국내선과 국제선 35개 노선을 대상으로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 중이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 등 장거리 노선의 항공권 시작가는 20만원대로 책정했다. 일본, 동남아, 중화권 노선에서도 최대 15%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에어프레미아는 내년 1월 인천~홍콩 노선을 신규 취항하고 태국 방콕 노선도 주 5회에서 주 7회로 확대 운영한다.

이스타항공은 인천~도쿠시마노선 단독 취항을 기념해 초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공항이용세와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편도 총액 4만9900원부터 선착순으로 판매한다.



6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청남도 수소분야 탄소중립 실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충청남도 김태홍 지사(앞줄 여섯번째), 전략기획실장 김동욱 부사장(앞줄 일곱번째), 현대차 국내사업본부장 정유석 부사장(앞줄 아홉번째) 등 주요 관계자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현대차

충청남도 수소분야 탄소중립 실현 위한 업무협약

현대차, 충청남도 수소교통 운영 돕는다

수소버스 전환 등 친환경 정책 동참
정비 서비스 거점 6개소 구축 계획

현대자동차가 수소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높인다.

현대차는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의 수소 전환에 맞춰 에너지 사업자로서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2033년까지 수소분야에 5조 7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대차는 울산에 '수소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포한데 이어 충청남도의 수소 생태계 확장에도 박차를 가한다.

8일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 6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이병화 환경부 차관, 김태홍 충청남도지사, 정유석 현대차 국내사업본부장, 김동욱 전략기획실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수소분야 탄소중립 실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2030년까지 도내 경유버스 1200대를 수소버스로 대체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소교통 전환을 추진 중인 충청남도의 친환경 정책에 현대차가 동참하며 성사됐다.

현대차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일렉시티,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를 충청남도에 보급하고 충청남도는 이를 시내외버스, 통근버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세계 최초 도심형 수소전기버스인 '일렉시티수소전기버스'는 교통 지체 구간 등 전기 소모율이 높은 노선 운행에 적합하다는 것이 현대차측의 설명이다. 1회 충전으로 최대 635km 주행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충청권에 수소 상용차 정

비 서비스 거점 6개소를 구축하는 등 충청남도의 원활한 수소교통 운영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달에 울산시와도 손잡고 수소산업 전반에 걸친 포괄적 협력에 나서며 울산을 수소 친화적 도시로 만든다고 발표한다. 양측은 수소 에너지의 생산부터 저장, 운송, 공급, 활용까지 수소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울산시의 수소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수전해 등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 수소 공급, 유통 방식의 효율화를 위한 연구개발, 수소 트랙터, 수소 지게차 등 수소 모빌리티 차종 다변화와 보급 확대 등 수소산업 전주기 분야의 사업 추진에 대해 협력한다.

/양성운 기자 ysw@

SK온, 세계 최고수준 품질경영 역량 입증

KOLAS 국제공인교정기관 인정
65개국 74개 기구 공인성 보장

SK온이 최고 수준의 품질경영 역량을 재차 입증했다.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품질 교정 및 측정 역량을 선제적으로 육성해 온 성과다.

SK온은 자사 품질본부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인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교정 역량이 보다 강화된 국제공인교정기관으로서 인정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SK온은 4년 전 최초 인정 획득 이후 금번 실시된 첫 갱신 심사에서 우수 품질 검증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번에 SK온이 인정받은 국제공인교정기관은 측정 장비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 표준에 따라 교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한국인정기구(KOLAS)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정 제도를 확립해 제품, 서비스 등의 안전과 품질을 평가하는 시험·검사·교정기관들을 공인하고 있다.

이번 인정 획득에 따라 SK온은 총·방전기, 온도 및 습도 챔버와 같은 자사 배터리 셀 품질 평가 장비들이 전압, 전류, 온도, 습도 등 4대 항목에 대해 정확한 측정 값을 갖는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차현정 기자